



## II

# 2021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

## 1. 살인

### 1) 범죄유형

- 2021년에는 총 692건의 살인범죄<sup>19</sup>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582건으로 84.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52건(7.5%), 자살교사/방조 42건(6.1%), 영아살해 8건(1.2%), 아동학대살해<sup>20</sup> 5건(0.7%), 촉탁살인 3건(0.4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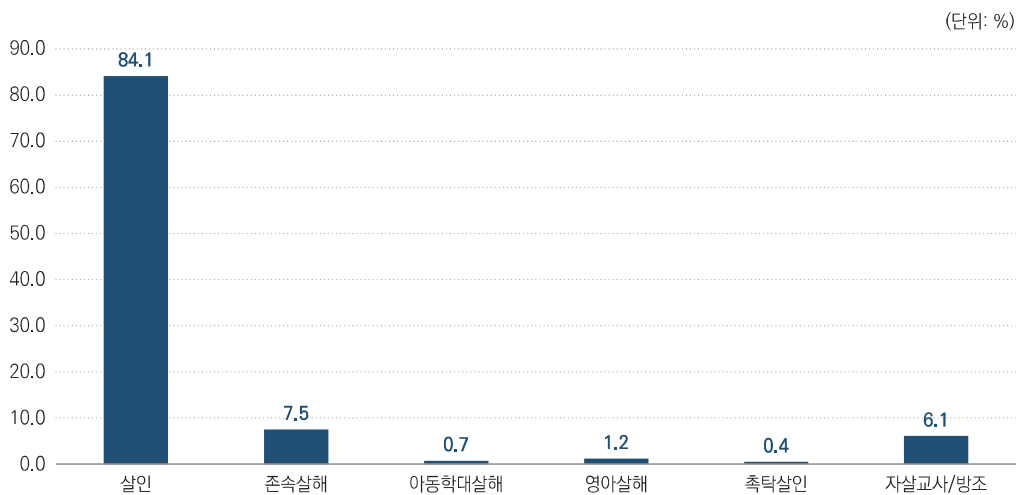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

19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가 모두 포함

20 아동학대살해: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(아동학대살해)를 의미

## 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<sup>21</sup>은 밤(20:00~03:59, 35.5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4.7%), 오전(09:00~11:59, 13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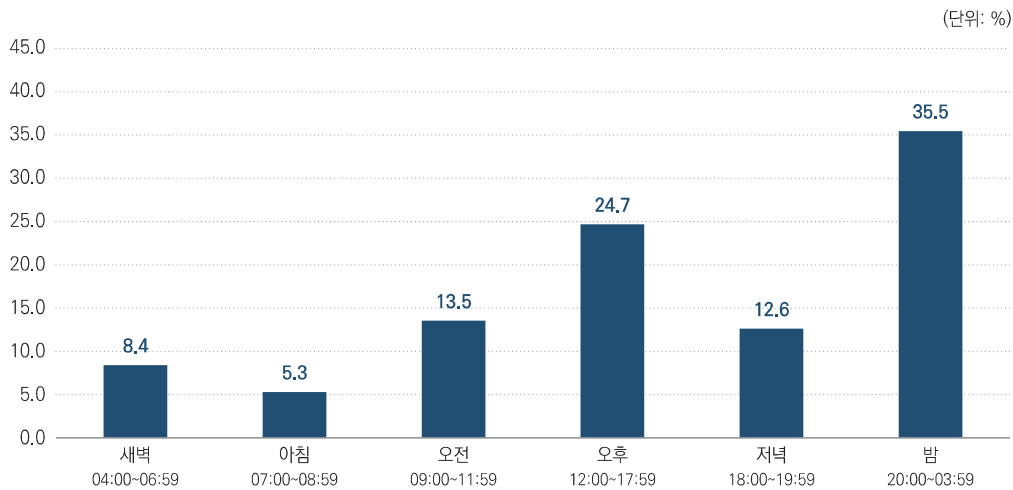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8.5%는 남자였으며, 41.5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67.7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아동 20건, 여동 19건으로 남아동이 여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피해비율은 여동이 7.0%로 남아동에 비하여 1.7%p 높게 나타났다.

21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,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13(3.4)	11(4.1)	24(3.7)
7세-12세	5(1.3)	6(2.2)	11(1.7)
13세-15세	2(0.5)	2(0.7)	4(0.6)
16세-20세	7(1.8)	9(3.3)	16(2.5)
21세-30세	50(13.2)	27(10.0)	77(11.8)
31세-40세	39(10.3)	39(14.4)	78(12.0)
41세-50세	77(20.3)	44(16.3)	121(18.6)
51세-60세	89(23.4)	56(20.7)	145(22.3)
61세 이상	98(25.8)	76(28.1)	174(26.8)
계	380(100.0)	270(100.0)	65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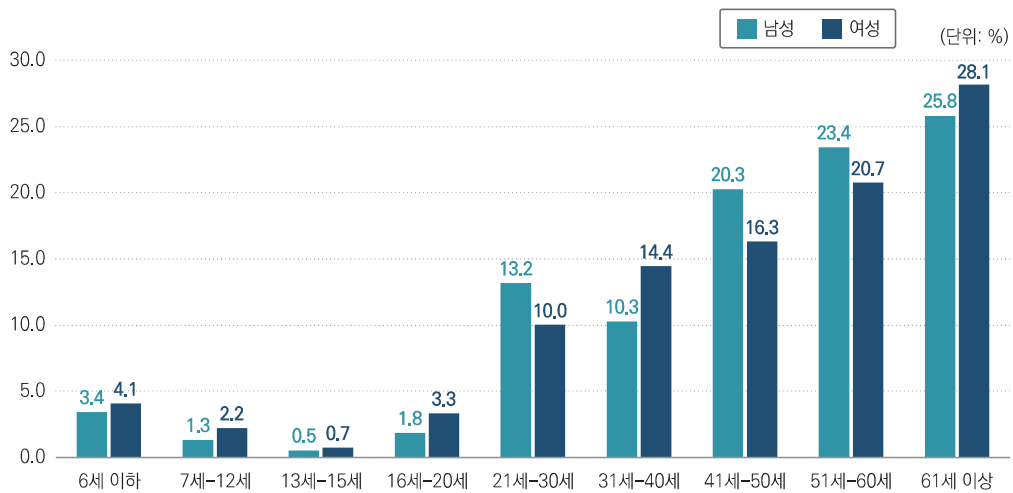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# 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43건으로 전체의 36.8%였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59건(24.1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58건(39.1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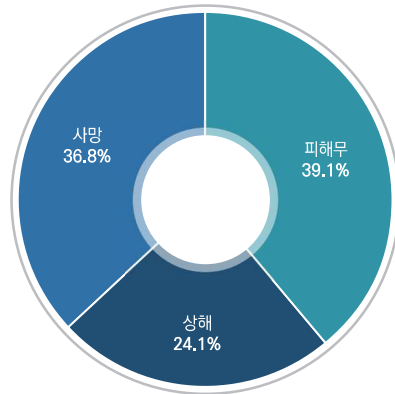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### 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22.8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30.2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7.1%), 친구/직장동료(9.8%), 기타(9.6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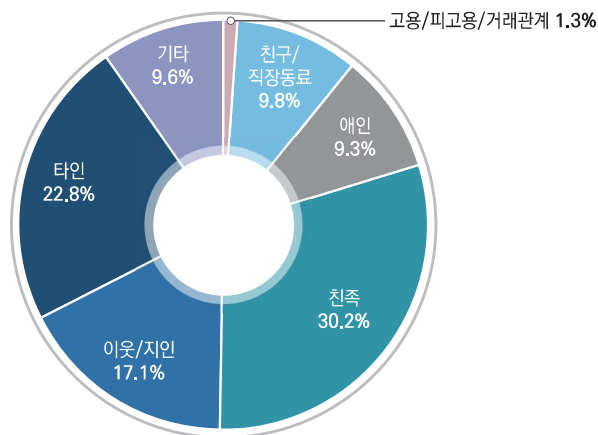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

## 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80.0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20.0%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 연령층이 24.0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, 61세 이상, 19세~3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19세~30세 연령층이 각각 36.1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31세~40세, 41세~5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61.8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34.9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5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0(1.7)	1(0.7)	11(1.5)
19세~30세	98(17.0)	52(36.1)	150(20.8)
31세~40세	93(16.1)	36(25.0)	129(17.9)
41세~50세	119(20.7)	23(16.0)	142(19.7)
51세~60세	138(24.0)	14(9.7)	152(21.1)
61세 이상	118(20.5)	18(12.5)	136(18.9)
계	576(100.0)	144(100.0)	72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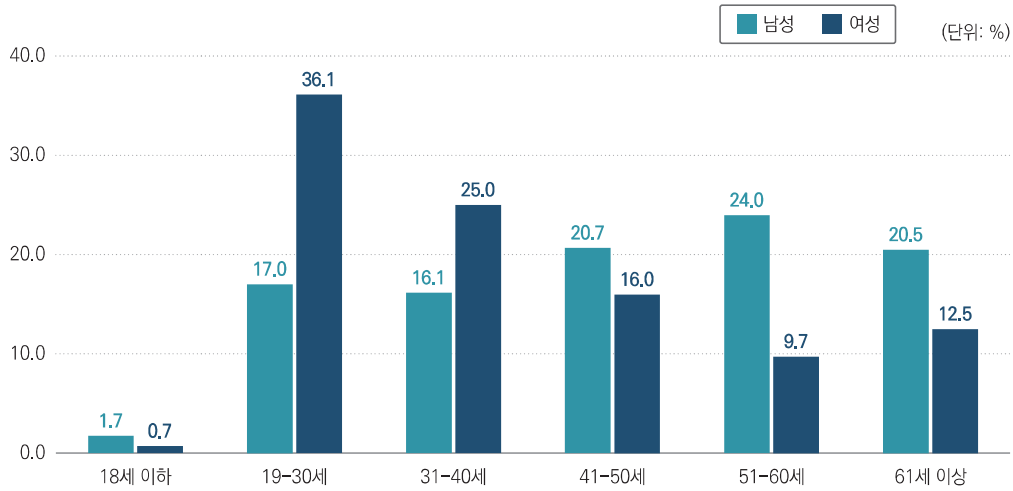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 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0.5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4.5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25.0%로 나타났다.

### 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.7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37.7%는 주취상태였으며, 8.6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4.6%로 남성범죄자(7.4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2.0%로 여성범죄자(17.5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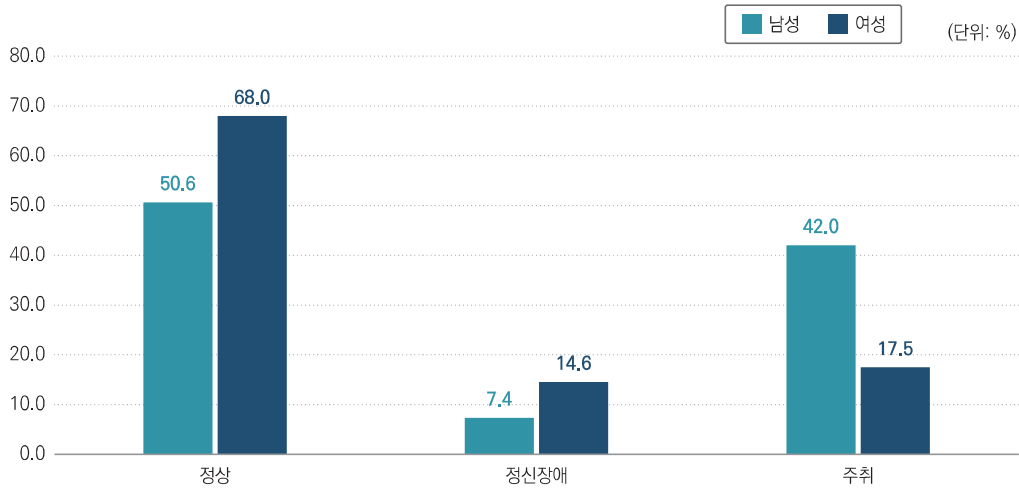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## 2. 강도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21년 총 511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0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48.1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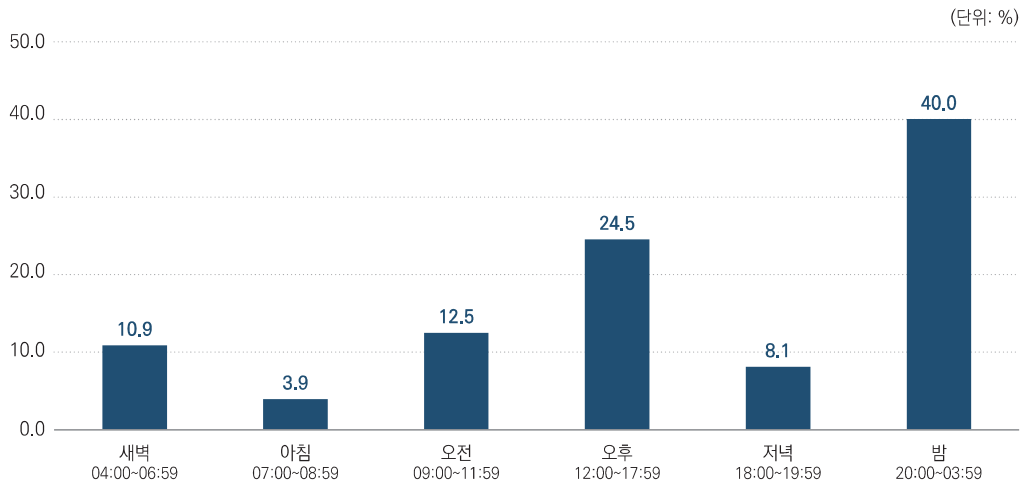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